

# 화순군, '민원 안내도우미' 배치

### 청원경찰, 안내 도우미 역할...전문성 높여 민원 만족도 제고 무인민원발급기·팩스 사용법·부서 위치·업무 담당자 안내



화순군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8일자 청원경찰·공무직 인사발령 당시 전문적인 안내 도우미 역할 청원경찰을 군청 민원실에 2명,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1명 배치했다.

청원경찰을 민원 안내 도우미 전담 요원으로 배치한 것은, 지속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안내 도우미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팩스 사용법을 알려주고, 청사의 부서 위치와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한다.

안내 도우미는 민원실이나 청사 방문이 처음이거나 민원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모든 군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 행정을 보실 수 있게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 추진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구례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생 모집

### 9월~12월 13회 매주 수요일 진행...농업인 주도적 참여형 실습교육 역량 키워

구례군은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 확대를 위한 교육생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농산물 가공창업 예정자에

게 꼭 필요한 기초 이론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를 활용한 분말, 젤, 추출음료, 환, 과립 등 다양한 조별 제품개발 실습 교육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서류를 갖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군 농업기술센터 야생화연구소(☎780-2569)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작년 교육을 이수한 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법인에 가입한 55명의 농가들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으로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2020년 12월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아 2021년에 14가지였던 제품이 올해는 21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코칭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공인의 소득기반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가공 창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장성무궁화공원 '꽃 활짝'... "나라꽃 구경 오세요"

### 46개 품종 1만 1000여 주 식재...개화시기 10월까지 이어질 듯

장성무궁화공원 무궁화가 개화시기를 맞아 고결한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냈다.

군에 따르면 공원 조성 1년여 만에 무궁화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지난 7월부터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해 광복절 전후로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장성무궁화공원이 자리한 곳은 장성읍 장성공원 잔디광장이다. 지난해 10월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했다. 군이 부지 제

공과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두산그룹은 모목 구입과 식재를 맡았다.

공원 내에 3·1운동열사장성의적비와 6·25참전용사기념탑이 있어, 무궁화공원 조성으로 호국보훈의 상징성이 더해졌다.

웅장한 규모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9500㎡ 부지에 무려 46개 품종 1만 1000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되었으며, 공원 한편에는 100개 품종의 무궁화로 구성된 품종원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한 자리에서 거의 모든 종

류의 무궁화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공원은 전국적으로도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에는 꽃이 더욱 풍성해졌다. 장성군은 산림청 무궁화동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비 포함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공원 일원에 무궁화를 추가 식재했다.

군은 장성무궁화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전망대 등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해 손꼽히는 무궁화 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나라꽃 무궁화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장성무궁화공원이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



# 나주시,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2차 포럼 개최

### 오늘 오후 3시 나주시 청년센터서 '문화재생과 지역상생' 주제로

나주시가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두 번째 포럼 자리를 갖는다.

나주시는 23일 오후 3시부터 나주시 청년센터(토계길 61)에서 '나주극장 문화재생 콜로키움 : Vol.2 문화재생과 지역상생'을 주제로 시민, 전문가, 사업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1회(나주극장 문화재생의 출발)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과 관련해 지역 문화산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지역 사회와 문화재생 간 상생과 확장 가능성을 함께 토론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포럼 1부는 서울대공원장, 한국관광공사 심사위원 등 문화기획전문가로 활동해 온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가 '문화재생-조치원 한림제지공장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오희영 안녕다방 대표의 진행으로 김양순(협동조합성안사람들), 나안미(여행렐프협동조합), 남우진(복합공간 3917마중), 임재환(나나노플레이) 대표들이 참석해 문화재생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지역사회 상생을 가치로 한 문화재생의 방안과 전망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옛 나주극장이 주민 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 거점이 되는 문화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포럼, 좌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나주극장(금성동14-1)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나주지역 최초 극장 시설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찾아 특성에 맞는 문화재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시는 옛 나주극장이 가진 역사, 장소적 가치를 되살리고 '다시 나주극장'이라는 테마로 근대 문화·예술·생활역사를 영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문화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문의는 나주극장사업단(☎334-2122)로 하면 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 이병노 담양군수, 생활권 중심 상수원 문제 해결 '구슬땀'

이병노 담양군수가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해 담양군의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을 논의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병노 담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문인 광주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청사진 마련을 위한 회동을 진행했다.

협의회를 통해 담양군이 추진 중인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광주시에 공동 건의를 약속했으며, 무등산 일원 관광 명소화를 위한 담양군과 광주 북구의



자연과 문화를 연계 활용한 관광협업을 제안했다. 담양=박종영 기자